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8호 【루계 제25251호】 주체105(2016)년 4월 17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리사장이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꾸바공산당 제7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아바나

꾸바공산당 제7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꾸바공산당 제7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꾸바공산당 제7차대회가 당을 강화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사회주의꾸바를 건설하기 위한 귀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당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5(2016)년 4월 16일 평양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4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2억 1 880만¥의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았습니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1957년에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언 59돐을 헤아리는 올해까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모두 162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77억 8 799만 390¥의 막대한 금액에 달합니다.

중등교육실시 7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전조직, 전동포들이 떨쳐일어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의 성스러운 애족애국운동을 크게 고무격려해주고있습니다.

더우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사상 최대의 《초강도제재》를 감행하고있는 험악한 속에서도 우리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그토록 귀중한 외화를 보내주시였으니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사랑, 후대사랑에 복받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맞으며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친히 강령적인 축하문을 보내주신데 이어 또다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하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발걸음을 같이하여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고수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총련조직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가르치심을 깊이 명심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천하지대본인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전조직, 전동포들을 총발동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맞으며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민족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학생들속에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을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둥감으로,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각계각층의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받아들임으로써 학생대렬을 기어이 늘이고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일본당국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민족교육탄압말살책동을 단결의 위력으로 반대배격하여 애국선대들이 피로써 지켜온 민족교육을 사수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품인 어머니 우리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삼천리조국땅우에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며 총련에서는 중등교육실시 7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맞는 력사적인 올해를 알찬 교육사업성과로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에 충정의 사업실적으로 기어이 보답해나가겠습니다.

반미전면대결전과 주체위업을 최후승리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가장 큰 기쁨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교직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5(2016)년 4월 16일 일본 도꾜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자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우리 식의 침목방부기술 개발, 전국적범위에서 도입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철도운수부문에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100% 국산화된 불화나트리움에 의한 우리 식의 침목방부기술을 개발완성하고 그것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도입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면서도 렬차운행의 안전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하는 이 자랑찬 성과는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진격해나가는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애국적열의와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침목과 전주에 방부제를 써서 수명을 늘이고 많은 목재를 절약하라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다.

펜타클로르페놀(PCP), 불화나트리움, 비소화합물을 비롯한 강한 독성을 가진 물들림성물질을 먼저 침투시킨 다음 그것이 류출되지 않도록 원유나 콜스가공부산물 등의 유기화합물로 피복처리하는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침목방부기술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당당한 우리의 것을 창조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야말 불같은 일념을 안은 정주철도종합기술원학교 철길강좌강좌장 장철호동무가 우리 식의 침목방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탐구의 초행길에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불화나트리움을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하자면 특수한 재질의 자재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설비들이 있어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만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면서도 철저히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립장에서 석탄과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소성법으로 완성시켜나갔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일 불같은 애국심을 지니고 제련소의 버림물질을 리용하여 물들림성이 다른 나라의것에 비해 1/20정도밖에 안되는 피복제를 련이어 만들어냄으로써 불화나트리움리용에서의 제일 난문제도 우리 식으로 훌륭히 해결하였다.

정주철도분국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백옥같은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생소한 국산화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그를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필요한 조건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드디여 지난해 9월 여러해동안 진행된 각이한 자연조건에서의 현장도입시험과 10여차에 이르는 해당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단위들에서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이 기술의 위생안전성과 환경보호적담보를 포함하는 여러 과학기술적지표들이 객관적으로 최종평가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도입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한 평범한 교육자가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 완성한 우리 식 침목방부기술이 가지는 인민경제적의의는 대단히 크다.

해당 부문에서 이 기술로 처리한 침목을 분석해본 결과 수입콕스탄의 라르를 리용할 때보다 수명을 2배이상 늘이면서도 생산원가는 1/8정도밖에 안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이미 7년전에 시험적으로 생산하여 개천철도국과 그 산하단위인 신의주, 정주철도분국들이 당당한 철다리와 차굴, 일반철길의 근 50리 구간에 깔아준 침목들에서 현재까지 부패와 환경오염을 비롯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운 침목방부기술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산과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서 반드시 나무침목을 깔아야 하는 철다리와 차굴, 급곡선철길구간들에서 레루의 진동과 그 소음을 최대로 줄여 렬차운행의 안전성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 증송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도약대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우리 식 침목방부기술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재부인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이깔나무는 보통 60~70년정도 자라야 침목용으로 리용할수 있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침목교체로 한해에 수만㎥의 목재가 소비된다고 볼 때 이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은 침목의 수명을 부쩍 늘여 해마다 많은 면적의 울창한 수림을 유지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뿐만아니라 탄광, 광산, 전력, 체신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동발, 전주를 비롯한 각종 목재구조물의 수명을 훨씬 늘여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극력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30년이상 자란 이깔나무림 한정보에서 보통 백수십㎥의 목재를 생산할수 있다고 보아도 앞으로 이 기술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도입하면 막대한 산림자원을 절약할수 있다.

지금 철도성에서는 당 제7차대회전까지 이 침목방부기술을 각 철도국과 분국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시범단위로 정해진 정주철도분국 생산기지에서의 불화나트리움생산량을 지난 시기보다 3배이상 늘이고 전반적인 작업공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공사가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속에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건축공사가 결속되는 차제로 설비조립을 끝내고 즉시 시운전을 진행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도 예견성있게 갖추어놓았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한 철야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는 가운데 각 철도국과 분국들에서의 기지건설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렬차운행의 안전성보장과 산림보호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또 하나의 자랑찬 로력적선물이 인민경제의 선행판이며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철도로동계급의 불같은 충정과 애국적열정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김성일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세차게 나래치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해 온 나라 천만군민이 날에날마다 새 기록, 새 기적을 창조하며 폭풍노도처 내달리고있는 속에 선군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될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바람이 거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려명거리건설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미더운 건설자들은 단숨에의 정신으로 수십동에 달하는 종전살림집들을 통채로 헐어내고 비력처리를 끝내였으며 지대정리작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그런가하면 일부 개소들에서는 벌써 기초콩크리트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도 당과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높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쑤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려명거리건설을 선로하시고 형성안착성으로부터 강력한 건설력량편성,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전반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어버이장군님께서 조선을 빛내이실 력사의 명세를 다지신 룡남산지구에 일떠설 려명거리는 초고층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조명, 난방문제를 태양빛전지열, 자연채광 등으로 해결하며 건물옥상에 온실을 조성하여 건축물의 록색화를 실현하는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이다.

건설지휘부일군들은 려명거리건설이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건설을 빠른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치기 위한 일별, 주별, 월별, 단계별전투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전투현장마다에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구호들과 속보들이 나붙고 방송선전차들에서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혁명적인 노래들이 힘있게 울려나오는 속에 전투원들의 사기는 날마다, 시간마다 더욱 고조되고있다.

초고층살림집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지난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발휘한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를 또다시 남김없이 과시하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당의 명령지시라면 단숨에 산도 허물고 날마다도 메우는 공격정신으로 종전의 낡은 건물들을 들어내고 수십만㎥에 달하는 비력을 불이 번쩍 나게 처리하였다.

주체조선의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할 일념으로 건설에 참가한 수도건설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철도성,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카설전골과 세멘트적치장건설을 비롯한 준비공사와 함께 방대한 량의 비력처리작업을 와닥닥 해제꼈다. 특히 외교단사업총국에서는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남먼저 기초굴착공사에 진입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지금 려명거리 건설자들은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월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할 불타는 일념안고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전혁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안고 70일전투철야진군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령남배수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풀먹는집짐승배자이식에서 높은 성공률 보장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염소배자이식에서 우리 식의 첨단과학기술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창조한 이 성과는 세포등판에 풀먹는집짐승떼들이 구름처럼 흐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펼쳐놓을수 있는 또 하나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축산기지운영준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건설이 끝나면 인차 은을 낼수 있게 함에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곳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아박고 기지운영과 생산활성화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인 우량품종의 풀먹는집짐승마리수를 빨리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 식의 배자이식기술을 연구도입하여 단번에 높은 수준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번 연구성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적은 원가를 들여 우량한 암염소의 알집에서 알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것이다.

암염소에게서는 생리적으로 보통 1~3개의 알이 나온다. 때문에 우량한 암염소에게 성선자극호르몬을 주사하여 알이 많이 나오게 한 다음 그것을 수정시켜 말육과정에 있는 알 즉 배자를 꺼내여 재래종암염소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우량품종을 늘이는것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 김순, 리상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주체의 신념과 민족적자존심으로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우리의것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수십리 산발을 오르내리며 현지시험을 거듭하는 과정에 전정삼, 하명혁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주사량과 시기를 과학적으로 정하는 등 우리 식의 성선자극호르몬처리방식을 연구하였다. 김주성, 김류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최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데 대한 당의 호소를 뼈에 새기고 부강조국건설에서 기관사, 기마수가 될 열의밑에 복부내시경에 의한 배자이식방법도 처음으로 연구도입하였다.

종전의 수술방법으로 배자이식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픔과 출혈을 비롯한 여러가지 작용에 의해 암염소의 체내에서 스트레스현상이 세게 일어나 배자이식의 성공률이 낮아지게 된다. 때문에 이들은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반드시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낼 비상한 각오를 안고 고심어린 노력끝에 복부내시경에 의한 배자이식방법을 연구하였다.

해당 부문 일군들의 방조밑에 연구사들은 수자식촬영기가 설치된 복부내시경으로 콤퓨터화면을 통해 이식과정을 판찰할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 짧은 시간에 배자이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재래종암염소를 리용하여 우량품종새끼생산량을 부쩍 늘일수 있게 되였다.

이 성과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제일체현자가 되여 최첨단을 돌파해나갈 때 반드시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각하

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의 탄생 104돐이 되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나자신과 우간다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욱더 단결된 나라로 전변시키시고 커다란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각하의 생애와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면서 각하와 그리고 귀 정부와 인민과의 훌륭한 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조선인민에게 지속적인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2016년 4월 6일 캄팔라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각하

나는 2016년 4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의 탄생 104돐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최대의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만마련방공화국 대통령
틴 죠
2016년 4월 8일 네이삐도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4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계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팔레스티나국가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팔레스티나와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중에 속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교관계설정전부터 모든 국제무대들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권리를 지지성원해주었으며 조선-팔레스티나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귀국을 선두로 하는 우리의 형제들과 벗들의 지지성원속에 민족적권리를 되찾고 독립국가창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팔레스티나인민은 친선적인 귀국과의 력사적인 관계에 대하여 긍지롭게 생각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귀국의 변함없는 립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과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련대성의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할것을 축원합니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
2016년 4월 13일 라말라흐

혁명일화

소수점아래 수자

70일전투열풍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새겨가는 우리 조국의 어장들에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포구들에 펼쳐진 《이채어경》이 흐뭇하고 자랑스러울수록 우리 인민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올라 그리움에 목메이는 천만군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주체65(1976)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를 지도해주실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수산사업소 지배인에게 가지고있는 배가 모두 몇척이나 되며 그가운데서 기관선은 얼마나 되는지 마력수별로 이야기하라고 하시였다.

지배인은 수십척이나 되는 배를 부류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기 시작하였다.

지배인의 대답을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중단시키시였다. 그러시고는 배가 무척이나 비는데 어떻게 된것인가고 물으시였다.

지배인은 다시 계산해보았다.

확실히 총수자와 부류별수자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부끄러운 속에서도 놀라움을 감출수 없었다.

수산사업소를 책임진 자기도 삭갈리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잘못된 계산을 대번에 알아보시였기때문이였다.

지배인의 얼굴은 붉어졌다. 당황해진 지배인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에 가서 찾아보고 다시 보고하라고 이르시였다.

부드러운 해학이 담긴 그이의 가르치심에 장내에는 웃음소리가 터져올랐고 긴장해졌던 분위기는 순간에 풀리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지배인에게 올해에 명태를 얼마나 잡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자신있는 어조로 9,000t나마 잡았다고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저 9,000t나마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몇t입니까라고 물으시였다.

지배인은 또다시 자기가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9,004.5t이라고 정확히 대답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왜 작은 수자는 보고하지 않는가고 나무라시였다.

지배인의 자책감은 컸다.

당시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포구로 들어오는 고기배들마다에 만선기가 휘날렸다. 우리 조국의 하루어획량은 몇만t에 달하고 있었다.

호방하고 틀스러운것이 바다사람의 성격인데다가 매일같이 물고기폭포를 다루는 그즈음이다보니 어느덧 물고기 몇t정도쯤은 대수로와하지 않는것이 지배인의 습벽으로 되어버렸다. 하여 어획고를 계산할 때 큰 수자만을 중시하고 작은 수자는 《여》, 《나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롯된 그였다.

그의 잘못을 깨우쳐주시려는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원래 소수점밑의 수자를 중히 여긴다고 하시였다.

소수점밑의 수자, 그것은 너나없이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리던것이어서 모든 회의참가자들은 커다란 자책과 함께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실뿐아니라 력사의 조종간을 틀어쥐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한개 수산사업소의 어획량이 어찌 큰 문제이라고 하랴. 더우기 소수점아래 수자에 대해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 어이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소수점아래 수자에 대하여서까지 그토록 관심하시는것인가.

지배인만이 아닌 모든 일군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심장으로 찾고있었다.

소수점밑의 수자도 인민들에게 가닿아야 할 몫이라고 보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렇듯 중시하시는것이리라.

인민의 식탁우에 더 많은 물고기를 놓아주자면 t이나 kg뿐만아니라 자그마한 수자까지 놓치는것이 없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고기 한마리까지도 세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사랑이라는것을 일군들은 명심하였다.

본사기자 김철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동포결혼상담중앙센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세월이 갈수록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과 재일조선인운동,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령도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극진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축전들은 칭송하였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대로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 재일동포들의 삶의 은인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총련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축전들은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을 짓부시고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보폭을 맞추어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모든 사업에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당면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서 제시된 5대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려 뚜렷한 실적을 올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것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과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조국의 부강번영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한생》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절세위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5일부는 《조선 김일성주석의 한생 104돐을 경축,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한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해방하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또한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그이의 고결한 인품과 따뜻한 인정미,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복시켰다.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깊이 매혹되였다.

에질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 3월 28일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한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하기에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는 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이다.

주체사상의 창시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자주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념원인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1일부는 《김일성주석과 한 일본인》이라는 제목으로 생전에 외국의 수많은 인사들과 밀접한 연고관계를 맺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진실같은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감동깊게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을 만났다

【평양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70돐 기념보고회가 16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태종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새 조국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 4월 함경남도안의 많은 단위들을 찾으시여 일군들을 만나 담화를 하시고 회의들도 지도하시면서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오랜 세월 사회적질곡과 빈궁만이 지배하던 함경남도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거창한 변영의 새 력사를 펼쳐준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함경남도내 모든 당단체들과 전체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지난 70년간 도의 전반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 당조직의 전투력이 강화되였으며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져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흥남과 단천지구에 풍부한 원료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화학공업과 민음직한 광업기지 등이 훌륭히 일떠서 함경남도가 위력한 공업도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거리와 마을의 면모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여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도안의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고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수동지구와 단천지구의 탄광, 광산의 로동계급이 석탄과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주체비료를 비롯한 화학제품과 대상설비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하며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더 많은 소비품이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며 축산과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이미 꾸려진 버섯생산기지와 남새온실, 양어장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전설방침과 대전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과학기술도서관을 비롯한 중요대상전설을 다그쳐 기한전에 완공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전시회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태양절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방문 51돐, 김일성화명명 51돐에 즈음하여 7일부터 9일까지 자까르따에서 김일성화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인양 만발한 태양의 꽃들로 전시회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머얀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과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인도네시아방문 51돐, 김일성화명명 51돐에 즈음한 김일성화전시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51년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여 인도네시아조선친선의 공고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을 더 잘 알게 될것이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개막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태양절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태양절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철동지와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철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태양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온 해외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세계지도에서 영영 사라질번 하였던 우리 조국을 주체의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워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해외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한 애국의 대진군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형의 첫 해외교포조직을 무어주시고 해외동포들을 넓으신 한품에 안아 친어버이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참다운 애족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력사는 오늘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력사와 더불어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천하제일강국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더 잘 모시고 충정다해 받들어갈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백두산통일대강국의 양양한 미래를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이런 투쟁기풍이 만리마시대정신을 창조한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조직들의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펼치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전달모임이 진행되는 드넓은 회의장은 격정과 환희로 일렁이고있었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불같은 결의가 터져나온 회의장만이 아닌 직동과 천성, 령대의 탄전들마다 기쁨에 넘쳐있었다. 어찌 일군들과 탄부들만이랴. 가두녀맹원들과 전세대 공로자들, 나어린 학생들까지 탄광마을의 남녀로소가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석탄공업부문의 맨 앞장에 선 전형단위가 되였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불같이 흘러온 격전의 날과 날들이였고 비약과 위훈으로 충만된 하루하루였다.

전투 첫날부터 높이 내세운 일석탄생산목표가 성과적으로 집행되고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으로 철야진군의 하루하루가 이어진 속에 지난 50일동안에 8만여t의 석탄이 증산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마다가 정신력이 다시한번 폭발되고 승화되는 계기가 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의 집단적경쟁열풍이 그대로 새 기적창조의 추동력이 되였으며 과학기술중시의 된바람이 비약의 보검이 되였다.

만리마의 고삐를 든든히 틀어쥐고 질풍노도쳐 비약의 도약대를 확고히 마련하고 승리의 마지막결승주로를 내닫고있는 순천탄전의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마다에 그 소중한 경험과 진리가 뚜렷이 새겨져있다.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옹위하자

나라의 굴지탄전인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도 2.8직동청년탄광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탄광이다.

탄광의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펼치면 첫 페지에 전투목표가 새겨져있다.

일정굴석탄생산량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는것과 함께 생산되는 석탄의 질을 한계단 높이는 문제, 전투기간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주타격대상들…

석탄생산량만도 헐간한 한개 탄광의 생산량과 맞먹는 석탄을 증산해야 하는 등 한조항, 한조항의 목표가 얼마나 방대하고 어떻이 큰것인가를 탄광의 일군들은 물론 탄부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탄광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었다.

70일전투시작을 선포하는 회의에서 한 탄광 초급당비서 리동철동무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물론 힘에 부친 목표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전례없는 생산성과를 내ls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전례없는 생산성과는 곧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를 의미합니다. 우리 일군들부터 만리마의 고삐를 든든히 틀어쥐고 온 탄광에 김유봉영웅이 지녔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이 싹 차넘치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70일전투승리를 담보하는 열쇠입니다.》

그 말속에 다 있었다. 평양의 불빛을 지켜 정든 고향을 떠나 스스로 탄광으로 달려와 천길지하막장에 빛나는 위훈의 별이 된 김유봉영웅, 1만t석탄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자며 자신을 초불처럼 태운 어제날의 5갱 5중대 당세포비서가 이들앞에 서있었다.

영웅지배인과 초급당비서가 앞장에 서서 막장전투지휘부에 좌지를 차지했고 탄광의 당, 행정, 참모부 일군들이 일제히 한개 단위씩 맡아안고 굴진소대들과 채탄중대들에 내려갔다.

천성청년탄광과 령대탄광 등 련합기업소아래 모든 단위에서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전투목표를 내세웠고 당결정으로 못아박았다.

련합기업소 일군들을 탄광들에 파견하면서 한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봉림동무의 이야기는 지금도 깊은 여운을 안고 울리고있다.

우리 일군들부터 탄부들과 하나가 되고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의 선두에 선 기수가 되자. 불같은 정과 사랑으로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우리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일군이 되자. 모두가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장의 1선자리를 차지하라. 방대한 전투목표돌파를 위한 정신력발동의 근본담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책임비서부터가 련합기업소의 생산전망을 열기 위한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물길굴굴공사의 돌파구인 6사갱굴진전투장을 타고앉았다.

한공되면 순시로 곧 1만kw의 전력과 대형롬프들을 쓰지 않으면서도 련합기업소아래 중요탄광들에서 막장침수를 막고 안전하게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주타격대상의 하나였다.

한쪽에서는 천성청년탄광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이 뿜어나오는 지하수와의 격전을 벌리며 한치, 한치 암반을 까고 다른쪽에서는 길영조청년돌격대와 2.16청년결사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이 허리치는 물과 감탕속에서 돌격로를 열어가는 사상의 대결장, 신념의 결전장.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있고 우리 원수님께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시대의 앞장에 세워주신 청년결사대, 청년돌격대원들이 사생결단의 격전을 벌리는 천길막장에 바로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이 전투원이 되여 들어섰고 도당책임일군이 감탕물속을 헤치며 찾아들어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런 진정에 고무되여 더욱 높아가는 결사옹위전의 함성속에 관통을 알린 마지막 110여m가 한m 또 한m 줄어들고있다.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의 갈피마다에서 찾아보게 되는 《우리 전투원》이라는 부름은 바로 채탄공들과 굴진공들의 진정에서 우러나온 친근한 호칭이다. 탄광과 갱들을 맡고 내려간 련합기업소당, 행정일군들뿐아니라 탄광의 일군들모두가 그 호칭에서 벅찬 70일전투참전자의 긍지와 희열을 느끼며 뛰고 또 뛰고있다.

직동의 일군들이 그렇고 천성과 령대의 일군들이 모두 1선참호의 야전지휘관, 전투원이 되여 증산돌격전의 앞장에 섰다.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도 하루 한교대씩 어김없이 담당한 막장에 들어와 전투를 벌려가는 그들은 단순한 증원로력이 아니라 만리마의 고삐를 틀어쥔 기수들이였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직동의 전투기록장에는 2월 23일 첫날부터 석탄생산량이 급격히 장성하기 시작하여 3월 5일부터는 탄광의 최고생산년도였던 1988년의 일정굴수준을 뛰여넘었다는 기록이 뚜렷이 새겨졌다. 지난 3월 탄광적인 굴진량은 1,950m로서 탄광이 생겨 처음 보는 전례없는 기록이 창조되였다. 이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김유봉청년돌격대와 차광수청년돌격대, 9갱 굴진3소대원들이 막장당 굴진실적에서 최고기록을 세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지난 3월 31일까지 9갱 2중대가 70일전투목표로 내세웠던 석탄생산목표를 강행돌파한데 이어 9갱 4중대가 승리자의 대오에 들어섰다. 모든 중대가 김유봉영웅이 섰던 5갱 5중대처럼 1만t 목표로 내달리는 속에 탄광적인 70일전투목표돌파의 날도 눈앞에 왔다.

전투기록장에는 전투기간 평양의 대동력기지에 보내준 석탄의 발열량이 평균 300kJ 더 높아졌다는 기록이 있다.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단 몇줄이지만 탄부들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바쳐진 헌신의 노력과 애국의 땀방울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천성청년탄광의 전투기록장을 펼치면 한조항, 한조항의 당결정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1갱의 2호벨트콘베아를 60m 더 연장하는 공사를 단 3일동안에 끝낸 이야기이다. 원래 이 공사를 2월중에 끝내게 되여있었으나 70일전투가 시작되면 때까지만 해도 긴장한 로력과 여러가지 조건으로 시작도 못하고있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적어도 보름이상은 걸려야 할 작업량이였으나 월말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엿새였다. 그러나 탄광당조직에서는 70일전투목표수행을 위한 당결정의 한조항으로 2월중에 무조건 끝내는것으로 다시금 못아박았다.

무조건, 당결정에 보충된것은 이 세 글자뿐이였으나 당원들모두가 비상한 의미로 새겨안았다. 초급당비서가 전투현장에 좌지를 정하였고 공사를 맡은 로동자들뿐이 아니라 지대인과 일군들모두가 전투원이 되였다. 10갱의 벨트콘베아해체작업과 운반, 설치작업이 동시에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격전은 예견했던 닷새가 아니라 불과 3일만에 결속되였고 운반능력이 부쩍 뛰여올랐다. 그리하여 1갱과 3갱, 5갱구역에서 전투시작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석탄생산량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이 탄광에서 지심으로 그물망처럼 뻗어간 벨트콘베아는 생명체의 피줄과도 같다고 할수 있다. 어느 한 구간에서 불과 몇분간만 멎어서도 탄광의 석탄생산에서 크게 파동이 일어나는 이 벨트콘베아수송선을 지켜선 한 일군에 대한 이야기가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고있다.

지난 3월 3일 밤, 벨트갱 갱장 허용선동무는 운반로선을 돌아보던 도중 뜻밖의 일로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채 탄광병원에 실려가게 되였다. 그런데 경추가 끊절되여 목에 부목을 댄 그가 이틀만에 갱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래웠다. 정신이 있는가고, 그러다가 생명까지 위태로울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흔연히 웃으며 말했다. 목을 쓰기가 좀 불편할뿐인데 사무실에 앉아서 생산지휘야 못하겠는가고.

허나 그가 음식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형편에서 때없이 현장을 돌아보고 나중에는 점점 악화되는 병세로 담가에 실린 몸으로 전투를 지휘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록장을 통해서야 알게 되였다.

탄광당조직에서 취한 비상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였지만 그의 마음은 한시도 탄광의 피줄—벨트콘베아수송선을 떠나지 않고있었다.

천성청년탄광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높았던 1월 석탄생산실적에 비해 일평균 800여t의 석탄이 증산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된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불같은 인간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놓여있다.

《70일전투 만세!》

천리마시대가 수천, 수만의 천리마기수들을 배출한 위대한 인간개조의 시대였다면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온 나라 인민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는 일대 사상전의 시대이다.

70일전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앙양되였고 그들의 심장마다에 끓고있는 애국의 더운 피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는 령대탄광의 전투기록장을 펼치며 후덥게 새겨안았다.

70일전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상단위에서 일하던 많은 로동자들이 자진하여 굴진공, 채탄공이 되여 갱막장으로 들어갔다. 통신작업만 교환수 박항욱동무를 비롯한 적지 않은 녀성로동자들도 1선초소로 뛰여들었다. 제손으로 석탄을 짱짱 실어날라 70일전투목표점령의 석탄산우에 승리의 기발을 꽂겠다고 스스로 전차운전공이 된 처녀들도 있고 꽃나이청춘시절에 맡았던 압축기를 다시 지켜선 가정부인들도 있다.

1970년대 70일전투참전자의 한사람인 공훈탄부 오형성로인의 나이는 올해 74살이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막장길을 걸고있다. 자신이 중대장으로 일하던 2갱의 채탄중대를 찾아와 70일전투와 100일전투, 200일전투의 나날에 발휘하였던 전세대 탄부들의 위훈담을 들려주며 고무해주는 그에게서 새 세대 탄부들은 애국의 넋을 넘겨받고있다.

탄광사람들뿐이 아니라 평성시와 순천시, 은산군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전세대 공로자들이 오늘도 화선명사의 심정으로 지원물자들을 안고 막장으로 들어서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안전원들의 엄격한 요구로 막장에 휘어들수 없게 된 탄광마을의 1,000여명 가두녀맹원들이 석탄증산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하고 남편들을 대신하여 살림집을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를 벌리고있다.

결코 녀인들과 로인들뿐이 아니다.

휘주악대가 늘어서고 꽃다발이며 꽃목걸이를 든 사람들로 붐비는 갱입구에 파의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나어린 학생들을 볼수 있다. 그들이 안고 온 더운물이며 콩우유가 얼마나 많은 탄부들의 심장을 울리고있는가.

지난 3월 6일 교대를 끝내고 갱을 나섰던 2갱 굴진소대장 리영섭동무가 얼마 안있어 막장에 다시 나타났다. 갱입구에서 콩우유고부를 안겨주며 반기는 아들의 물음앞에 얼굴을 들수 없었던것이다. 한학급의 누구 아버지네 소대는 300%를 수행했는데 아버지네 소대는 몇%냐는 물음에 차마 200%라는 대답을 할수 없었다는 그의 말에 온 소대가 다시 작업에 착수하였다.

2갱 3중대 채탄공 리길남동무는 얼마전에 아버지가 되였다. 귀여운 딸애를 안아보라고 등을 떠미는 동무들의 권고로 집에 들어섰던 그는 안해에게서 등을 맞고 되돌아섰다. 70일전투목표를 돌파하기 전에는 딸애를 안아볼 자격이 없다는 것이였다. 지원물자까지 한아름 안겨주며 70일전투의 떳떳한 참전자가 되여 딸애앞에 서달라는 안해의 진정어린 당부를 온 중대원들이 무겁게 받아안았다.

이런 후더운 진정, 불같은 마음들에 떠받들려 막장들이 끓고 석탄목로가 쏟아지고있으며 새로운 비약의 돌파구가 열리고있다.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한결같은 대답이다. 교대를 마치고도 막장을 떠날줄 모르는 채탄공들과 그 누가 보는이 없어도 무거운 배낭을 지고 운반선로들을 메주밟듯 오가며 불비한 개소를 퇴치해가는 차도공들, 제 집의 귀한 보물마냥 석탄 한줌, 한줌을 모아 지탄장으로 향하는 탄광마을 녀인들도 마음속진정을 터놓을 때면 눈시울부터 적시군 하였다.

불같은 애국의 열과 정을 안고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가시는 우리 원수님께 적으나마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하고싶은 심정뿐이라고,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선 심정으로 총화해보며 분발하군 한다는 꾸밈없는 목소리들…

지난해 직동과 천성, 령대탄광과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물길굴굴공사장에 새로운 청년돌격대들이 생겨났다. 지난날 일시 길을 잘못 든것으로 하여 부모들의 가슴을 태우고 사회와 집단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속에 재생의 출발선에 들어선 청년들의 집단이다.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더없이 소중히 어겨주시며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불러주시고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뼈에 새긴 청년돌격대원들이 충정의 70일전투에서 결사의 실천으로 보답의 길을 질주하고있다.

령대탄광의 전투기록장에는 지난 3월 31일 련합기업소적으로 제일먼저 년간계획완수의 승전고를 울린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이 새겨져있다. 돌격대안에 또 결사대까지 무어 탄광이 생겨 있어본적이 없는 최고기록을 돌파한 이들, 우리가 만나본 청년돌격대원들은 대부분이 지난해 돌격대를 무을 때까지만 해도 막장일에 생소한 청년들이였다. 경험도 기능도 나이도 어린 그들이 단 석달동안에 방대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청년돌격대의 한 소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남들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로 땀을 더 흘리고 뛰고 또 뛰면서 보답의 먼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청년돌격대원이라는 긍지가 곧 기적창조의 원동력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들뿐이 아니다. 직동의 김유봉청년돌격대원들과 천성의 리수복청년돌격대원들, 자연흐름식물길굴굴공사장의 길영조청년돌격대원들모두가 보답의 열망, 결사의 각오로 가슴끓이며 막장에 돌격대기발을 꽂아놓고 불같은 공격전을 벌려 련일 새 기록, 새 기준을 돌파하고있다.

부피두꺼운 전투기록장들에 기록된 수많은 혁신자들의 위훈담과 하루에도 수십, 수백가지나 꽃펴나는 미풍에 대해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다. 그러나 70일전투의 선봉에서 내달리고있는 순천천구의 참전자들의 심장마다에 무엇이 끓고있는가를 다시금 새겨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꼭 전하려 한다.

지난 3월 17일 천성청년탄광의 8갱 채탄1중대 막장에 갑자기 짐이 오면서 붕락되여 채탄장이 막혀버렸다. 막장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탄소대장 홍봉일동무와 또 한명의 전투원이 남게 되였다. 구조대는 곧은 탄광이 떨쳐나선 속에 긴급구조전투가 벌어졌다. 산같이 쌓여 갱도를 막혀온 버력을 처리하며 한치, 한치 열어간 14시간의 긴장한 전투, 드디여 통로를 열고 막장에 뛰여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소대장과 전투원을 와락 그러안았다. 희박한 공기로 하여 의식은 없었으나 심장은 뛰고있었다. 황급히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실어보낸 뒤 넓지 않은 막장의 공간을 둘러보던 모두의 눈길이 한곳에 모아졌다. 막장을 떨치고 억척같이 서있는 동발목에 씌여진 글발이 안전등불빛에 우렷이 안겨들었다.

《김정은동지 만세!》, 《70일전투 만세!》

최후를 예감하고 남긴 그 글발은 그대로 심장의 웨침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그이의 령도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강성국가로 우뚝 솟아오르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 순천의 참전자들만이 아닌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70일전투를 통하여 더욱 억척같이 뿌리내린 위대한 진리가 한자한자의 글발에 빛발치고있었다.

만리마는 비약의 도약대우를 날은다

순천의 탄부들이 충정의 70일전투목표로 내세운 석탄증산목표를 돌파할 시각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 직동과 천성, 령대의 많은 채탄중대들이 이미 70일전투목표를 돌파하였으며 련합기업소적인 생산실적이 10여일분이나 쑥 앞서나가고있다.

석탄생산실적이 종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준에 확고히 올라선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보다 긍지높이, 소리쳐 자랑할만 한것은 련합기업소가 모든 면에서 다시한번 더 높이 나래쳐오를수 있는 새로운 비약의 도약대를 든든히 마련해놓았다는 점이다.

순천탄광기계공장과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은 련합기업소의 믿음직한 병기창들이다. 이 공장들에서의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성과가 주목할만 하다. 전투기간 한차 차륜과 전차차륜, 각종 설비부속품들을 광광 생산보장하고 감속기와 뽐프, 능률적인 관성식적재운반설비생산을 늘여 탄광들의 증산투쟁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면서도 과학기술을 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고 줄직줄직한 일관들을 벌려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순천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설계한 공기복합식선탄기가 그 기술경제적효과성이 대단한것으로 하여 련합기업소와 탄광의 일군들은 물론 해당 부문 과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큰 이 공기복합식선탄기가 탄광들에 제작실치되면 질좋은 석탄이 화력발전소들에 공급되게 되여 철도수송과 화력발전소들의 정상운영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미 공기복합식선탄기의 설계가 최종완성되여 제작에 들어갔다.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에서도 탄광들에서 많이 쓰고있는 6in 5단뽐프능력에 맞먹는 6in 3단뽐프를 설계제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막대한 전력을 절약하면서도 석탄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자력자강의 창조물을 마련하였다.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으나 순천전구는 이미 승리의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있으며 다음단계전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있는 소식들이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마다에 새겨지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모든 채탄중대들에 사슬콘베아와 관성식적재운반설비들이 보강되여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이 한층 높아졌으며 벨트콘베아수송선들과 전차운반로선, 삭도운반선들이 증설되여 석탄생산량이 대폭 늘어나고있다.

령대탄광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침수되여있던 심부채탄구역들이 환원복구되여 석탄생산을 계단식으로 확대할수 있는 전망이 열렸으며 직동과 천성에서는 유망한 새 갱건설준비가 다그쳐지고있다.

련합기업소에 능력이 큰 현대적인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어 가까운 앞날에 갱도영구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는 또 하나의 전망이 열리였다.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온 련합기업소를 휩쓰는 속에 이룩된 성과 또한 보는 사람, 듣는 사람마다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있다.

직동과 천성, 령대의 그 어느 갱에나 현대적인 통신체계가 확립되고 갱막장까지 콤퓨터망이 구축되여 천길막장에 앉아서도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열람할수 있고 텔레비존방송을 청취하고 그날 당보를 아침 첫 시간에 볼수 있게 되여 탄부들모두가 문명바람이 천길지하막장에까지 불어친다고 어깨를 들썩이고있다.

갱밖에 앉아서도 매 막장들과 운반선들, 전반적인 생산고리들을 손금보듯이 화면으로 들여다보며 실시간으로 생산정형을 종합하고 지휘할수 있게 꾸려진 종합조종실들이며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실들…

령대탄광에 새로 꾸려진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은 또 어떠한가. 수도 평양의 한복관에 옮겨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안락이 최한한 건물에 맑은 물 출렁이는 수영장과 갖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갖추어져있어 탄광마을사람들의 웃음소리 그칠새 없는 령대원은 그대로 탄광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방조속에 100%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비누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려놓은것도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뚜렷한 성과이다. 그 질이 다른 나라의 원료로 생산한것에 비할바없이 좋고 생산능력 또한 련합기업소적인 수요의 몇배나 된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가슴흐뭇하게 하는가.

탄부오리공장에 가면 판리공들의 손 한번 가지 않게 사양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고기생산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선뜻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탄부하재 되고 새로 훌륭히 꾸려진 탄부휴양소에서는 양어와 축산, 과수와 온실, 버섯재배에 이르기까지 자체의 부업토대를 강화하여 휴양생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였다는 자랑을 들을수 있다.

참으로 투쟁열, 혁명열로 끓어번지는 순천전구의 전투장마다가 그대로 거창한 창조의 열매들이 주렁진 전시장이였고 눈앞에 다가온 승리와 또다시 아득히 비약할 래일로 하여 가슴부풀게 하는 전망대였다.

그 한복판에 서서 우리는 확신에 넘쳐 웨친다.

선군조선의 만리마는 새로운 비약의 도약대우를 날으고있다고.

* *

우리 당이 충정의 70일전투의 선봉에 선 전형단위의 하나로 내세워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이 격동적인 호소로 시대를 울리고있다.

오늘의 70일전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뭉친 천만군민이 위대한 정신력으로 폭풍쳐 내달려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고 최후승리를 위한 비약의 도약대를 마련해가는 전인민적인 총진군, 총결사전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피줄을 잇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할 때 상상도 못했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고 70일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다.

우리모두 만리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나래쳐오르자.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승리의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자.

글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강명천
사진 본사기자 신충혁

— 천성청년탄광에서 —

— 2.8직동청년탄광에서 —

인류문예사에 특기할 위인칭송의 예술축전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재보—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하여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고있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념원인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담아 화창한 봄계절에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어버이수령님 탄생 70돐을 맞이하던 주체71(1982)년 4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장엄한 합창으로 력사적인 축전의 첫막이 오른 때로부터 어느덧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기를 이어오며 더욱 이채롭게 진행되고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들이 모이고모여 시대와 력사앞에, 인류앞에 삼가 올린 이 세상 제일 훌륭한 태양칭송의 예술축전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내 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류문예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기나긴 인류사에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진 다양한 축전들이 기록되여있다. 체육, 문화, 예술의 전통적인 형식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의 폭넓은 범위로 확대되면서 인류문명과 사회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는 축전행사들은 오늘도 세계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세계 5대륙의 예술인들이 하나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안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펼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자주적인 운명개척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는 위인칭송의 예술축전이다.

세상에는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공헌을 한 위인들도 적지 않으며 그들의 업적을 전해주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부피두터운 저서들도 있다. 그러나 내 조국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같이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인간의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화원으로 례찬하고 격조높이 구가한 사실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돌이켜보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30여년이라는 력사는 비록 길지 않아도 이 행성우에 처음으로 되는 만민칭송의 폭풍같은 위인숭배열을 안아온 인류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곡절도 많고 시련도 많았던 20세기의 풍랑속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20세기 인류가 받아안은 크나큰 긍지이고 기쁨이였다.

1980년대초 세계의 인민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에서 세기를 두고 바라던 꿈과 리상을 직접 보았고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마다에 자주적인 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었다.

온 세계가 우러러따르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열풍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계기로 더더욱 고조되는 속에 주체71(1982)년 4월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축전의 첫장을 뜻깊게 장식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에서 우리 나라 예술인들과 재일조선인예술단, 기네, 기네-비싸우, 르므니아, 방글라데슈, 페루, 이딸리아, 일본, 한자녀아의 예술인들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경축하려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박차고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나라에서 온 예술인들도 있었고 사상과 정견이 다른 나라에서 온 예술인들도 있었다. 인간생활의 따사로운 봄빛을 갈망하는 인민들이 자주의 봄빛을 찾아 사회주의조선으로 왔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제일 훌륭한 위인흠모의 축전을 펼치였던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의 계절과 화려한 예술무대라는 의미만으로는 결코 그 위대한 력사적무게와 인류사적가치를 다 헤아릴수 없는 조선의 4월과 봄축전.

수수천년 잠자던 사람들의 심장속에 자주적인 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환히 밝혀준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인류의 봄이였고 언어와 피줄, 정견과 신앙, 지경과 국경을 넘어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선에서 심장으로 터친 위인칭송의 열렬한 격찬이였다.

30여년세월 축전의 나날들에 수놓아진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평양에 도착하는 걸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불러 수많은 환영군중의 마음을 뜨겁게 격동시킨 예술인도 있었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매혹의 세계에 온넋이 끌리여 밤을 새워가며 칭송의 노래를 훌륭히 완성한 예술인도 있었다. 화려한 무대에서 관중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고싶은 욕망이 아니라 절세의 위인을 열렬히 흠모하는 열망을 안고 평양으로 온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태양칭송의 찬가들은 봄축전의 무대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일성동지 당신은 위대한 수령이십니다》(기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나의 흠모》(오스트랄리아), 《조선의 태양》(파키스탄), 《수령님 계시는 조선을 우러러》(베네수엘라), 《김일성, 김정일동지께 영광드리네》(마다가스까르), 《우리의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만세》(요르단), 《김정일각하 만세》(수리아), 《나의 영원한 태양》(로씨아), 《평양을 그리는 마음》(일본), 《제 좋는 나라 찾아가네》(단마르크)…

하기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유럽의 이름있는 한 예술단단장은 《성대한 개막행사, 화려하고 황홀한 공연무대, 다채로운 축전행사들모두가 희한하기만 하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내가 본 모든 축전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조선의 봄축전은 순위를 위한 축전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이 넘치는 축전, 5대륙의 예술인들이 모두 모여 한가정을 이룬듯싶은 친선단결의 축전이라는데 자기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노래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경모와 칭송의 노래, 영생의 노래이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피눈물의 해 1994년이후에도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여 세인의 심장을 격동시키였다.

외국의 한 시인이 《세계는 심장을 잃었습니다》라고 비통함을 토했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일찌기 인류가 알지 못하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몰아왔다. 그렇다고 하여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장으로 향한 인류의 발걸음이 언제 한번 멈춰선적은 없었다.

태양의 빛발속에 피여나는 아름다운 예술의 꽃은 비바람과 눈보라속에서도 시들줄 몰랐다. 주체84(1995)년 태양절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오세안주에서 수많은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제1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 수령님께서는 영원히 인류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의 노래를 심장으로 불렀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에 받들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더욱 의의깊게 진행되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불면 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를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의 마음을 담은 훌륭한 예술작품들이 무대에 올라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세계의 많은 예술인들의 대부분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뵈온적 없는 새 세대들이다.

허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와 춤을 안고 조선으로 달려왔으며 그 어떤 명예를 바라서가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마음을 안고 봄축전무대에 오르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날을 따라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태양의 력사는 줄기차게 흐르고있음을 심장으로 확신하고있으며 칭송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세계가 머리를 숙이고 만민이 칭송하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온 누리에 울려퍼지는 위인흠모의 메아리는 진정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의 삶과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류의 꺼질줄 모르는 영원한 심장의 울림이다. 바로 여기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가지는 거대한 사회력사적의의가 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규모와 내용, 진행방식에 있어서 예술축전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색있고 권위있는 전인류적인 대예술축전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는가에 따라 해당 축전의 성격과 리념이 정가된다고도 말할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다채로운 국제콩쿨들과 예술축전들이 진행되고있다. 예술인들의 개인기량경연을 위주로 하는 음악콩쿨만 하여도 그 수가 100여개나 되며 각이한 명칭의 예술축전들은 수십개를 헤아린다.

실례로 음악부문에는 관현악, 실내악을 기본으로 하는 축전들이 있는가 하면 고전가극을 전문으로 하는 축전도 있으며 기악위주, 성악위주의 축전들도 있다.

한편 교예부문에서도 각양각색의 축전들이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세계 적규모의 콩쿨이나 축전들을 놓고보면 대부분이 순위입선을 위한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그 규모도 기악이나 노래, 가극, 교예 등 어느 한개 부문에 국한되여있다.

아무리 력사가 오래고 완롤있는 예술축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 예술을 위한 축전, 뛰여난 재능을 시위하는 무대, 그 어떤 상업적리윤을 위한 계기로 된다면 그것은 벌써 예술의 고유한 사회적본성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되기마련이다.

참다운 예술은 인간의 아름답고 순결한 정신의 창조물이며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예술의 이러한 본성적요구에 충실하면서 더욱 발전하고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이름있는 예술단체, 국제콩쿨수상자들을 비롯한 관록있고 재능있는 명배우들은 물론 신진예술인들과 전문예술인이 아닌 애호가들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상과 제도, 재능과 실력의 차이를 뛰여넘어 누구나 다 참가하고있다.

또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어느 한두 종류의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음악, 무용뿐아니라 교예까지 다 포괄하는 예술축전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의 축전인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29번째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였던 주체103(2014)년 4월에 종합된 자료만 놓고보더라도 32년간 연 1 080여개나라에서 1 800여개의 예술단체들, 1만 7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명실공히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아래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두터이 하고 인류의 예술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하고 의의있는 세계적인 행사임을 잘 알수 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축전의 성격과 사명에 맞으면서도 여러 나라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의 특성을 최대로 살릴수 있도록 조를 무어 공연하는 조별합동공연형식, 음악무용작품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온 개별적인 예술단체가 단독으로 공연하는 단독공연형식, 매개 나라 예술단체들의 공연종목들중에서 우수한 종목들을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공연하는 련환공연형식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공연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기에 명배우들의 공연, 실내악공연을 특색있게 배합함으로써 그 예술적수준과 품격이 해마다 높아지고있다.

특히 축전은 다양하면서도 고유하고 개성적인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족예술에 대한 폭넓은 리해와 서로의 발전경험을 주고받는 중요한 문화예술교류의 회합으로서 민족문화전설과 인류문화예술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또한 민족적색채가 진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술이 안받침된 특색있는 극장들은 예술의 벗들에게 언제든지 훌륭한 창조조건을 보장해주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낸다. 축전에 참가한 세계의 예술인들은 한결같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우리 행성의 유일한 예술올림픽》, 《규모나 내용, 형식에 있어서 최고를 이루는 독창적인 축전》이라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처럼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진정한 예술의 본성에 충실한 전례없는 축전으로서 년대와 세기를 이어 더욱 이채를 띠고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우리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온 세계에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충정속에서 태어난 만민칭송의 대화폭이다.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만민의 신념과 의지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며 수십년세월을 흘러오고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자랑스러운 년대기에는 봄축전을 명실공히 위대한 태양칭송의 무대로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들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예술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을 국제적인 예술축전으로 전통화하고 축전의 명칭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으로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에 맞게 축전의 전과정을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도모하고 세계문학예술의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6(199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력사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통하여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를 더욱 뜨겁게 느끼고있다고, 해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조직하니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더 화려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과 랑만이 넘쳐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세계반동들이 우리 사람들이 다 굶어죽어가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망한다고 떠들고있지만 우리들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하나만을 가지고도 원쑤놈들에게 된타격을 주고있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안겨주고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예술인들에게 태양칭송의 열기를 뜨겁게 부어주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오늘 서른번째 년륜을 새기고있다.

백두산대국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결코 예술의 산물이라고만 볼수 없다. 그것은 예술의 힘이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인간의 정신세계, 가장 열렬하고 순결한 인간의 심장이 낳은 하나의 산 생명체와도 같다.

지난 세기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제국주의반동들의 검은 마수가 평양축전으로 향하는 세계 진보적예술인들을 어쩌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 하였지만 태양을 따르는 정의의 길, 진리의 길은 꿋꿋이 이어졌다.

오늘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기상에 겁을 먹은 원쑤들이 야만적인 《초강도제재》소동을 벌려놓고 전대미문의 탄압을 다하고있지만 인류의 태양을 찾아, 정의와 진리를 찾아 조선으로, 평양으로 달리는 세계 진보적인민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음을 조선의 봄축전은 긍지높이 선언하고있다.

세기를 이어 끝없이 흐르고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자랑스러운 발전과정을 두고 인류는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천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고있다.

자주와 정의의 노래처럼 아름답고 진실한것은 없다. 자주적인간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사회주의조선의 4월의 봄노래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인류의 귀중한 재보이며 흥칼로도 막을수 없는 신념과 의지, 정의와 량심의 거세찬 불길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기상이 만방에 빛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르고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선의 힘이며 흥칼로도 막을수 없는 정의와 진리의 흐름이다.

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다.

주체의 조국에서 힘차게 울려퍼지는 위인칭송의 노래, 자주의 노래는 이 땅우에 전쟁과 예속이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진보적인류의 정의와 진리의 노래이며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더없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고 제국주의반동들에게는 공포와 전률을 주는 사회주의승리의 노래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온 세계에 울려퍼지는 사회주의조선의 봄노래와 더불어 인류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태양의 빛과 열이 영원하듯이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찬가는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인류력사와 함께 생겨나고 파지로부터 현재, 미래에로 계승하여야 할 가장 소중한 재보를 가리켜 사람들은 인류공동의 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고있으며 그것을 후세에 길이 전해가고있다.

세계인민들의 위인칭송의 열풍속에서 마련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300년, 3 000년이 흘러도 인류공동의 영원한 재보로 빛을 뿌릴것이다.

우 정 혁

항일혁명투사가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항일혁명투사 리영숙동지가 백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1세탑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온 그에게 은정깊은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주체5(1916)년 이역땅에서 태어나 망국노의 설움속에 살아오던 리영숙동지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섰으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사랑속에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자라나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 참가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그는 새 조국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당, 행정일군으로 사업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충정을 바쳐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 그에게 김일성훈장과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하여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여 인생을 더욱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를 비롯한 주요계기들에 그를 대표로 불러주시며 끝없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까지 로당익장하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생일상이 16일 리영숙동지에게 전달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리영숙동지와 가족, 친척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크나큰 은정에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끝없는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만경대 방문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가 1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리사장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만경대고향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이어 그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는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리사장은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올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는것을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해방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련환공연 진행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련환공연이 15일 평양대극장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환희의 봄명절,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한 공연장소들에는 대륙과 태양을 넘어 축전도시로 밀려온 예술사절들과 우리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김영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김영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함께 공연들을 보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출연한 련환공연무대들에는 성악과 기악, 무용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민족기악 2중주 전인민적송가 《충성의 노래》, 녀성독창 《장군님생각》, 《축원》, 설화와 무용 《그리움의 노래》 등의 종목들에서 예술인들은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로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무대들에 울려퍼지는 송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인류와 더불어 영원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자기 나라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정서, 생활세태를 생동하게 형상한 로씨아 마쌀리쩨노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아 워로네쥬민속합창단의 합창과 무용 《워로네쥬군무》, 남성독창과 무용 《깔린까》, 웰남국가예술단의 무용 《웰남비람의 혼》, 에스빠냐 플라멩꼬음악단의 노래와 무용 《환희의 노래》는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웰남국가예술단의 민족기악 2중주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교향악단 실내3중주단의 피아노3중주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을 발휘하여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잘 형상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이 땅우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 자주로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로고와 헌신이 있어 우리 인민이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음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련환공연무대들에는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고전발레단, 말레이시아 프레스코 하모니카중주단 예술인들이 성의껏 준비한 종목들도 올랐다.

해외동포예술인들은 녀성독창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 무용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남성독창 《조국과 나》, 《내 마음 철새가 되지 않으리》, 시와 무용 《세계여 우리를 보라》에서 언제나 어버이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해외교포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려는 동포들의 의지를 깊게 보여주었다.

무용 《북춤》, 장새남독주 《바다 만풍가》에서 출연자들은 멋들어진 춤가락과 흥겨운 선률로 공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며 그이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앞당겨오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녀성독창 《천리라도 만리라도》와 녀성2중창과 합창 《불타는 소원》 등은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친선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진행된 공연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세련된 기교로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태양절경축연회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14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경축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국가회의, 련방공산당, 정의의 로씨야당, 자유민주당, 평화 및 통일당,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외무성, 교육과학성, 문화성, 상공회의소, 철도주식회사, 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인사들이 초대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다.

로씨야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아레끄예브는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그이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또한 전통적인 로조친선협조관계의 시원을 마련해준분이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목격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기적적인 성과들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현실은 조선이 훌륭한 발전전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로조친선관계는 계속 강화될것이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만민이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친선단결의 노래는 영원하리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장에서

우리 원수님 이끄시는 조국에 드리는 찬가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예술인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입니다.》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파감히 벌려나가는 어머니조국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바다건너 이역땅에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려가는 총련의 동포들,

날을 따라 사납게 몰아치는 칼바람도 위대한 태양만을 따라 끝까지 가고가려는 총련동포들의 애국의 넋과 의지는 결코 꺾을수 없음을 우리는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장에 펼쳐놓은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 《영원한 태양의 품》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조국이 있다

매일, 매 시각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탄압만행을 겪어야 하는 총련동포들에게 있어서 그처럼 참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견뎌고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무대우에 펼쳐진 하나하나의 공연종목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확신성있게 찾을수 있었다.

이 세상 누구나 누려볼수 없는 위대한 태양민족으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깊게 형상한 서장 《태양민족 제일일세》에 이어 장내에 울려퍼지는 남성독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행복의 꽃, 웃음의 꽃 만발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우리 인민들의 투철한 사상정신세계가 그대로 빛발치는 명곡에 담긴 깊은 뜻을 자자구구 되새기며 노래를 부르는 리강수동포의 얼굴에는 애국의 항로를 곧질기게 막아나서는 모진 광풍속에서도 광명한 미래를 향해 꿋꿋이 나아가려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총련의 어제와 오늘, 래일도 있음을 더욱 가슴뜨겁게 보여주는 무용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관중의 심금을 더욱 뜨겁게 틀어잡았다. 피눈물을 뿌리며 현해탄을 건너갔던 할아버지, 할머니세대, 나라없던 그 시절에는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를 눈물속에 한탄만 해야 했던 우리 동포들이 오늘은 온 세상에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소리높이 웨치며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가는것을 조화로운 률동과 화폭으로 펼쳐놓은 무용에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하나만의 안락을 위한 길을 택하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자기들은 오직 한길로만 줄달음쳐왔다고 하면서 단장 강수내동포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역땅에서 사는것이 정말 힘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몰아치는 온갖 탄압의 찬바람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도록 떠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면에 당당히 선 강대한 조국이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이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려가게 하는 크나큰 힘의 원천입니다.》

조국땅을 처음으로 밟아본 17살의 어린 나이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를 받아안고 밤깊도록 베개잇을 눈물로 적셨던 그날부터 그의 심장속에는 조국이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소중한것으로 더욱 깊숙이 자리잡았다고 한다. 사랑의 손목시계의 초침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가며 자기 한생의 가장 귀중한 재부를 새 세대 예술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든것을 짱그리 바쳐가고있는 총련의 오랜 예술인의 이 진정의 토로는 그대로 예술단성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하기에 이들은 온 세계의 친선사절들이 모여든 뜻깊은 축전무대에서 심장의 목소리를 합쳐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강대한 조국이 있다고 그토록 소리높이 노래할수 있었다.

태양의 빛발따라 총련은 앞으로

공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높아지는 관중의 열렬한 박수갈채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은혜로운 해빛넘쳐 눈부시게 밝은 나라, 그 미래도 찬란한 태양의 나라인 위대한 나의 조국을 사랑한다고 격조높이 터친 혼성 5중창에 이어 무대우에 펼쳐진 소해금과 무용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혼성4중창 《뜨거운 마음으로》, 만리마 날으는 조국의 벅찬 현실을 반영한 장새남독주 《마다 만풍가》, 우리 장단과 가락에 맞추어 흥취를 돋구며 멋들어진 춤률동을 펼쳐놓은 무용 《장고춤》을 비롯한 모든 종목들은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과 예술적정서를 훌륭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중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장내를 그처럼 남다른 격정과 흥분의 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한것은 단지 총련동포들의 예술적기량이 류달리 높아서만이 아니였다.

공연이 끝난 뒤 우리와 만난 한 대학생은 참으로 진실한 마음이 엿보이는 공연을 보았다, 배우들의 눈빛과 동작들마다에서 그 어떤 친지풍과가 불아친데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고 받들려는 충정의 마음을 그대로 엿볼수 있었다, 노래가 아니라 심장의 웨침을 들었고 무용이 아니라 총련동포들의 투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았다라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그렇다. 이들의 노래는 결코 오선지에 그려진 선률만을 따른것이 아니였다. 내 나라를 누구도 넘볼수 없는 강대한 조국으로 온 세계에 우뚝 솟려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강렬한 매혹과 뜨거운 충정으로 불타는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조국이 올해의 장엄한 서막을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힘차게 열어제꼈을 때 바다건너 이역땅을 휩쓸었던 감격과 환희, 온 일본땅이 떠나가도록 목청껏 부른 그날의 만세소리가 그대로 선률이 되고 음향이 되여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을수 있었다.

하기에 관중은 《내 마음 말지 않으리》, 《이역의 아리랑》,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여러 노래들을 전체 총련동포들의 마음속진정을 담아 부르고 또 부르는 인민배우 리영수동포를 비롯한 전체 예술인들에게 그토록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보내였다.

《우리 조국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멀리 떨어져살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과 강인담대한 배짱에 대하여 더욱 사무치게 절감합니다. 원수님 따라 나아갈 때 우리 태양민족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예술단성원들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기에 오늘의 강대한 조국이 있고 원수님 따르는 길에 승리만이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안은 총련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오늘도 그러하지만 총련은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련으로 빛을 뿌릴것이라는 그 심장의 고백을 그대로 무대우에 펼쳐놓았기에 이들의 공연은 종장 《원수님 따라 총련 앞으로》로 막을 내렸지만 관중의 폭풍같은 박수갈채는 뜨겁게 달아오른 장내와 더불어 오래도록 계속되였다.

본사기자 한경철

벗들이 터치는 심장의 고백

로씨야인민배우 예술인들의 고백

우리가 본 조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로씨야 《스따브로쁠리에》 국립까자크예술단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여러차례 권위있는 국제예술축전들에서 최고상과 상장들을 수여받은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다.

이런 예술단성원들에게 조선에서 열리는 축전에 참가하게 된다는 소식은 류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것은 제국주의어용수단들이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싸우는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평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것이 모두 그들을 깜짝 놀래웠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기념비적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 대한 감탄으로 첫페지를 아로새긴 예술단성원들의 《평양방문인상기》는 어디를 가나 꽃이 피고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수도의 거리들과 친절하고 뜨거운 정넘치는 조선인민들의 모습 등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로씨야의 공훈예술가이며 공훈배우인 이한 그로마조브 예술단단장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부 언론들이 평하는 조선과 우리가 본 조선은 전혀 다른 나라이다.

전조선을 다 볼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본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많은 나라의 예술인들이 광범히 참가하고있는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발견이다.》

이들이 본 조선의 모습, 그것은 결코 나라의 문명정도나 발전수준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장인담대한 배짱과 불굴의 탁력을 지니신 또 한분의 친솔명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모시여 끝없이 번영하는 태양조선의 참모습이였으며 주체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강국의 창창한 미래였다.

본사기자 조향미

전문가의 탄복

속전의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로씨야 마쌀리찌노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 워로네쥬민속합창단의 예술인들은 기량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오래전부터 꿈틀어 준비한 작품들이였지만 우리 나라에 와서부터는 공연에 대한 감독의 요구성이 훨씬 높아졌던것이다. 무엇때문인가.

동평양대극장에서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진행한 개막공연을 보고 료수이며 로씨야인민배우인 예술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훌륭한 공연이였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은 아직까지 본적이 없다고 생각된다.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말한다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쎌란드에 강점되였다가 갓 해방된 도시에서 조직된 합창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그 기간 유명한 배우들도 수많이 키워냈으며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의 예술도 직접 보아왔지만 조선의 예술은 대번에 그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주체예술이 이들에게 새로운 예술의 황홀한 경지를 펼쳐보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름난 작곡가인 인민배우의 탄복은 합창단성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심을 더욱 뜨겁게 분출시켜주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위인칭송의 예술축전무대와 더불어 끓어번진 로씨야예술사절들의 이런 마음속격정이 그대로 더더욱 솟구치는 열정으로 이어졌기에 만족을 모르는 기량훈련의 화폭이 펼쳐질수 있은것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앞당겨진 련습시간

※ 몽골교예발전쎈터교예단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태양절은 명실공히 인류공동의 명절입니다.》

얼마전 평양교예극장을 찾았던 우리는 공연을 앞두고 련습에 여념이 없는 몽골교예발전쎈터교예단 배우들을 보게 되였다.

아직 공연시작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정력을 아낌없이 쏟고있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열정적이였다. 결코 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였다.

몽골교예발전쎈터교예단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지는 교예단이다. 이들이 이번 축전에 펼친 체력교예 《수틀무동재주》는 여러 국제교예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서 어디서나 절찬을 받아왔다.

그러한 그들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열리는 이번 축전에 참가할 결심을 가지게 된것은 몇달전이였다. 처음으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그들은 축전무대에 올릴 작품선정부터 각별한 품을 들이였다.

세계를 놀래우며 나날이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있는 조선의 교예예술에 완전히 매혹되여있던 교예단성원들은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축전무대에는 응당 자기 교예단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작품을 올려야 한다고 결정하고 공연준비에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평양에 도착하여서도 련습을 멈추지 않았다. 극장에서의 련습휴식시간에도, 오고가는 차안에서도 기교와 연기형상을 놓고 토론하군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었다.

그들은 거듭되는 의논끝에 련습시간을 앞당기기로 하였다. 이것은 첫 공연을 한 날에도, 두번째 공연을 한 날에도 그들의 변함없는 일과였다.

자기들의 작품을 하나의 흠잡을 점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바친 이들의 진정에 떠받들려 공연은 매번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철호

청춘의 기백넘친 하모니카소리

말레이시아 프레스코하모니카중주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높이 흠모하고 따르는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이번 축전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프레스코하모니카중주단은 단장 쑨혹춘안과 그의 인해인 주요연주가 충씨트에, 연주가 홍제후를 비롯하여 20대, 30대의 젊은 연주가들로 이루어져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하모니카를 전문으로 하는 중주단은 이 단체가 최음이라고 한다.

2006년에 조직된 중주단의 청년예술인들은 하모니카의 고유한 특성과 자기 식의 개성을 뚜렷이 살린 새롭고 특색있는 걸작품을 만들어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열정에 넘쳐 예술창조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진행되는 여러 하모니카축전들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재능있는 연주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중주단의 성원들이 예술활동의 활무대를 평양에 이어놓은것은 지난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때부터이다.

그때 이들이 무대에 올린 조선노래의 첫 곡목이 바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이들은 축전참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절감하게 되였으며 정의와 진리를 옹호하고 자주와 평화, 친선과 단결을 지향하는 4월의 대예술회합의 숭고한 리념에 매혹되였다. 바로 그때부터 이들은 봄축전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왔다.

이들의 공연에서 이채를 띠는 것은 매번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명곡들을 골라 하모니카로 특색있고 품위있게 형상하여 축전무대에 올리는것이다.

올해 봄축전을 위하여서도 이들은 품을 들여 많은 준비를 하였다. 그중에서도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비롯한 명곡들의 독특하고 세련된 형상은 이번 축전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고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흥을 주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봄축전무대들에서 기백넘치고 열정적인 하모니카연주를 련이어 펼쳐가는 말레이시아청년예술인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만민이 터치고터치는 위인칭송의 메아리,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소리는 앞으로도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철웅
사진 본사기자 리동규

뜻깊은 명곡에 비낀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한 위대한 혁명력사와 업적을 새겨오신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참된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귀감이십니다.》

그가 이 노래를 그렇듯 열렬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조선말로 유창하게 부를수 있은데는 사연이 있다.

그의 어머니는 베루 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협회 위원장이다. 어머니를 통해 틀어온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소중히 새겨주었다.

하기에 그는 이번 제30차 베루독창가 뚜에스따 오떠니아노 로싸 떼레싸는 이번 축전무대에서 우리 나라 노래 《수령님밖이 퍽 깊었습니다》를 절절하게 불러 많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한 위대한 혁명력사와 업적을 새겨오신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참된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귀감이십니다.》

그가 이 노래를 그렇듯 열렬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조선말로 유창하게 부를수 있은데는 사연이 있다.

그의 어머니는 베루 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협회 위원장이다. 어머니를 통해 틀어온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소중히 새겨주었다.

하기에 그는 이번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되였을 때 제일먼저 베루주재 조선대사관을 찾아갔다. 꿈에서나 볼수 있는 조선노래를 부르고 싶었던것이다. 이런 과정에 선정한 노래가 바로 《수령님밖이 퍽 깊었습니다》였다.

인민의 어버이의 위대한 한평생이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이 뜻깊은 명곡을 조선말로 훌륭히 형상하기 위해,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는 베루인민들의 마음을 노래에 담기 위해 그는 열흘동안 불같은 열정을 기울이고 온넋을 다 바치였다.

이렇게 되여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무대에서 또다시 높이 울려퍼지게 된 명곡이였다.

진정 이것은 한평생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다 바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베루독창가만이 아닌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가장 열렬한 분출이며 오늘도 래일도 끝없이 울려퍼질 위인칭송의 노래인것이다.

본사기자

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 뷰로성원이며 시의회의원인 니콜라이 주브릴린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박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는 수많은 조선인민들을 보면서 그이께서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이밖에 제18차 김일성화축전장, 과학기술전당 등을 참관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이 떠나갔다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행이 16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길성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이 전송하였다.

한편 이날 하나와 후지오 간또련락회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련락회대표단이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멋과 긍지를 안고 더 좋은 래일로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사탕조각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의 천아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속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격정과 환희를 더해주며 얼마전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자리잡고있는 청류관에서는 사탕조각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다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날로 높아지는 음식문화와 문명수준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이번 전시회는 최상의 문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멋과 긍지를 북돋아준 또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식료일용공업성과 인민봉사총국아래 40여개 식료공장들과 봉사단위들에서 200여명의 기술일군들과 료리사들이 창작한 570여점의 각종 사탕, 과자조각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는 매 단위들에서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과 동식물들, 건축물, 자연풍경, 과일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창작형상한 사탕, 과자조각들을 전시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기발한 착상과 재치있는 예술적기교, 재료선택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정교한 예술작품들을 방불케 하는 각종 사탕, 과자조각들이 전시되여있는 전시회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탕조각전시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수많은 참관자들로 하여 흥성이였다.

참관자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사탕, 과자조각시범출연까지 진행하는것으로 하여 전시회는 더욱 이채를 띠고 진행되였다.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적색채가 짙은 각종 건축물들, 만화영화의 주인공들과 여러가지 동식물들을 정교하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형상한 조각품들을 바라보며 참관자들은 연해연방탄성을 올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모은것은 청류관전시대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온 내 조국의 현실을 재치있는 조형적형상으로 인상깊게 보여준 《부흥하는 내 나라》를 비롯한 50여점의 각종 사탕, 과자조각들이 전시된 청류관전시대는 주제사상적내용과 예술적기교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른것으로 하여 수많은 참관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청류관 료리사 신혜순동무는 우리에게 이번 전시회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집약적으로 독특하게 형상하겠는가 하는 청류관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수십차례에 걸치는 집체적토의와 합평회를 거쳐 오늘과 같이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전문단위들을 찾아가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면서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완성하던 나날은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자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심장으로 새길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절감하게 한 나날이였다고 이야기하는 료리사 장수향동무의 이야기도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해방산호텔에서 전시한 사탕, 과자조각들도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시대앞에서 우리와 만난 과장 임옥순동무는 우리 당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이르는 곳곳마다에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넘친 모습을 《커가는 행복》이라는 제목속에 다양한 만화적수법으로 재치있게 형상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30여점이나 되는 사탕, 과자조각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료리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이 한계단 올라선것은 물론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심과 함께 일본세에서도 큰 전진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인민의 봉사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안아볼수 있었다. 비록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지만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였다는 보통강려관관리국 료리사 김숙영동무의 이야기도 력 인상적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하여 각 도종합식료공장들이 훌륭한 사탕, 과자조각들도 전시되여 전시회의 분위기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전시회참가자들은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우리의 멋과 긍지속에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모습을 《풍년이 왔네》, 《미래과학자거리》, 《이채어경》, 《조국의 진달래》와 같은 조각작품들에 훌륭히 반영함으로써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탕조각전시회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문명수준과 민족의 향취 한껏 넘쳐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더 좋은 래일을 보란듯이 마중해가는 랑만과 희열, 열정과 긍지를 훌륭하게 보여준 의의있고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김성민

남조선을 최악의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의 죄악을 고발한다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박근혜가 지난 괴뢰대통령선거때 후보로 나서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민생대통령》이 될것이라고 목청을 돋구어 왕고하였다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역도년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 3년이 지난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어떠한가.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파국에 처하고 각종 참사와 범죄 등 사회악이 더욱 판을 치는 그야말로 사람 못살 세상,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였다.

《헬조선(지옥같은 남조선)》,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절망시대》, 이것이 격노한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참패를 당한것은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에 분노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극악한 반인민적통치로 남조선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역적패당의 만고죄악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경제

박근혜년은 입에 침이 마를새 없이 떠들어댄 《경제부흥》은 고사하고 남조선경제를 최악의 파국적위기에 몰아넣었다.

박근혜년은 《대통령》선거때 《경제민주화》를 기본공약으로 내들고 《집권하면 재벌들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겠다. 》, 《중소기업대통령이 되겠다. 》고 떠벌이였다.

그러나 년은 《대통령》벙거지를 쓴지 50일도 못되여 《경제민주화》공약을 백지화해버리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괴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이 론의되자 《공약도 아닌것을 토의하는것이 걱정된다. 》, 《대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는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라고 발딱 뒤집으면서 《새누리당》을 내몰아 그와 관련한 법안통과를 가로막아나섰다.

역도년은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통한 수출확대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쳤다.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 강행체결된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은 괴뢰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48가지나 되여 《제2의 을사5조약》으로까지 불리우고있다.

그러나 박근혜년은 각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리행을 떠들면서 알곡시장에서 음일하게 남아있던 쌀시장마저 통채로 개방하여 농민들을 죽음에로 내몰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을 싸다니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열을 올리였다.

그것이 남조선경제에 어떤 부정적후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알짜무식쟁이, 문외한인 박근혜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박근혜년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으로 남조선은 무역품종의 83%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수출기업의 50%이상이 피해를 입고있으며 주변나라들의 경제악화로 남조선경제의 명줄인 수출액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 2월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2.2%나 낮아졌다.

박근혜년의 집권 3년간 년평균 경제성장률은 김대중, 로무현집권시기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고 리명박《정권》시기보다도 더 떨어져 세계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하는것처럼 경제가 그야말로 막바지에서 허덕이고있다.

지난해말 파산에 직면한 대기업들은 54개로서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고 자체의 영업리익으로 리자도 갚지 못하는 대기업은 567개나 되며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2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몰락하고 그것이 제조업전반에로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였다.

기업들의 련쇄적인 파산, 몰락은 실업률의 급격한 증대에로 이어지고있다.

현재 실업자는 3년전에 비해 23.3%나 늘어난 450여만명에 이르고있으며 하루에 1~2시간 또는 1년에 몇개월씩 고용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반실업자는 무려 1 000만명에 달하고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력대 최고인 12.5%를 기록하고있다.

박근혜년의 무모한 《경기부양정책》으로 남조선경제는 전문학적인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다.

괴뢰패당은 빈사상태에 처한 남조선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정부》예산을 늘이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최대한 끌어내여 시장에 푸는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의 리자률을 력대 최하로 낮추고 해마다 로무현《정부》의 5배, 리명박《정부》의 1.3배에 달하는 《국채》를 람발하였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난것이 아니라 갈수록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금융루기업들의 사기와 협잡은 날로 우심해져 기업들과 가정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눌리워 허덕이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의 《국가부채》는 력대 최고인 1조 1 700억US$로 치솟고 기업들과 가정들이 진 빚은 3년전에 비해 각각 18%, 30% 더 늘어나 1조 1 800억US$, 1조 2 000억US$에 달하였으며 전체 채무는 남조선인구가 몇년동안 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갚아야 할 천문학적액수에 이르고있다.

박근혜년의 개성공업지구 폐쇄망동으로 124개의 남조선입주기업을 포함한 6 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12만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였다.

괴뢰경제전문가들이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년의 북남경제협력파탄책동으로 남조선이 입는 직접적 및 간접적 피해는 수백억US$에 달한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 진출기업들과 로동자들이 《해북제재가 아니라 대남제재이다. 》, 《북에 하나를 주지 않으려고 수백을 손해보는 머저리짓을 하였다. 》고 강력히 비난하고 각계층도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서 허덕이는것은 박근혜의 무능과 무지의 귀결이다. 》, 《국민은 박근혜때문에 피가 마르고있다. 》, 《이대로는 못살겠다. 》고 하면서 반박근혜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와 세계최대의 투자금융회사까지도 박근혜가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인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함으로써 경제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신용도에 부정적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자제를 요구하고있다.

박근혜년의 집권 3년은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파국적위기에 몰아넣은 파산과 몰락의 3년, 절망과 악몽의 3년이다.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남조선민생

박근혜년의 집권 3년간 가뜩이나 어려웠던 남조선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져 눈을 뜨고 더는 볼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역도년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무려 200여가지의 민생 및 복지공약들을 무더기로 내들고 이것이 실행되면 《국민들이 팔고루 잘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회유기만하였다.

그러나 실현된것이란 어느 하나도 없다.

박근혜년이 《보육은 정부가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기만 하라. 》고 하면서 녀성들을 유혹했던 《무상보육》공약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떠넘겨져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있으며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공약 역시 대학들에 밀어치워 흐지부지되고말았다.

특히 65살이상의 모든 로인들에게 지불하겠다고 공약한 기초년금은 그 지급대상을 70%로 줄이였으며 《4대질병환자에 대한 무상치료》, 《고등학교 무료교육》 등 민생공약의 대부분을 재정난을 구실로 축소하거나 파기해버렸다.

결과 현재 남조선에는 날을 따라 치솟는 엄청난 치료비와 보육비, 등록금 등 각종 재정부담에 짓눌려 최저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570여만명이나 되며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층도 수백만명에 달한다.

더우기 로인빈곤률은 48.6%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산층과 소득이 높은 계층의 절반이상이 경제침체로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있으며 남조선인구의 절반이상이 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박근혜패당의 수탈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은 년간 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뜯기우고있다.

지난해 괴뢰패당이 각종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3년전에 비하여 12%나 늘어났다.

박근혜패당의 부동산투기책동은 류례없는 전세대란, 주택대란까지 일어나게 하고있다.

괴뢰통계청이 밝힌데 의하면 전체 주민세대의 47%에 달하는 850여만세대가 세방이나 쪽방, 비닐집, 판자집, 짐함, 움막 등에서 살고있으며 서울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 지난 3년동안에 수십만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물가는 년평균 15%씩 뛰어올라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있는가 하면 등록금을 내지 못해 대학생들이 식당과 공사판에서 품팔이를 하고 생계실험대상으로 제몸을 바치다 못해 사회를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사랑, 결혼, 해산, 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버리는 《7포세대》를 넘어 자기의 모든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까지 생겨나고 《저주로운 이 땅에서 살고있다는것자체가 부끄럽다. 》며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박근혜패당의 친재벌정책으로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있다.

괴뢰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10년전의 8.8배에서 지금은 12배로 더 벌어졌으며 한줌도 안되는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 불평등이 제일 심한것으로 평가되였다.

최근에는 《갑질》현상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나 심각한 사회적론난을 일으키고있다.

《갑질》이라는 말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량반과 부자들을 《갑》으로, 백성들을 《을》로 부르며 착취와 억압, 부패 등 《갑》이 저지르는 온갖 못된짓을 비난할 때 썼던 표현으로서 최근 남조선에서 부유층들의 전횡을 신랄히 조소하면서 다시 등장하여 류행되고있다.

1990년대에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닌 재벌자식들이 일반승용차가 선행하였다고 운전사를 집단폭행한 사실이 사람들을 놀래웠던적이 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재벌의 딸이 제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려객기승무원에게 행패질하다 못해 리륙하던 려객기까지 되돌려세워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2014년에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어느 한 섬에서 소금밭을 경영하는 주인놈이 10여명의 장애자들을 외딴 시설에 감금해놓고 마소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일을 잘못한다고 하여 쇠사슬로 묶어 개우리에 처넣은 일명 염전노예사건이라는것까지 일어났다.

가난한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것이 남조선의 특권족속들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여나지 못하면 일생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 《1%가 모든것을 독차지하는 개같은 세상》이라고 개탄하면서 박근혜년에게 《청와대안방에서만 뒹굴며 고생도 못해보고 아이도 못 낳아본 년》,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천하에 몹쓸년》이라고 저주를 퍼붓고있다.

절대다수가 국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며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고있을 때 박근혜년은 집권 3년동안 무려 180여벌의 옷들을 하루에 몇번씩이나 편질나게 갈아입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국민행복》타령만을 늘어놓아 민심의 더 큰 분격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대참사

박근혜년이 청와대에 들어앉은 후 남조선에서는 특대형참사와 사건사고들이 그칠 사이없이 일어나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대표적인것이 세계를 경악케 한 2014년 4월 《세월》호침몰대참사이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것처럼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박근혜년의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고의적인 집단대학살만행이다.

박근혜년은 《세월》호침몰사고가 일어난 날 그에 대해 통보를 받고도 경각을 다투는 그 시각에 7시간동안이나 딴장을 보며 돌아쳤다.

역도년의 이 경악할 반인륜적만행은 선실안에 갇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구조를 태공하여 수백명이 생죽음을 당하게 한 《세월》호 선장의 살인죄보다 더 큰 중범죄이다.

더우기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되도록 사죄와 보상은커녕 아직까지 선체를 건져올리지 않은 살인마《정권》에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돌고래》호침몰사고, 전라북도 군산항에서 있은 대형짐배침몰사고를 비롯하여 박근혜패당이 빚어낸 각종 해양사고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지난해에만도 2012년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은 2 740건의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하고 112명이 죽거나 실종되였다.

바다에서뿐아니라 지상과 지하, 하늘 어느곳이나 할것없이 마음놓을데가 없다.

박근혜집권 1년반도 못되는 사이에 경상북도 경주시 제옥판지봉봉괴사고, 경기도 고양시 버스종합주차장과 전라남도 장성군 료양병원화재사고, 아시아나항공회사소속 려객기착륙사고 등 50여건의 각종 대형사고들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서울지하철도로선에서 일어난 전동차충돌사고, 2015년 2월 인천시의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0여대의 자동차충돌사고 등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온 대형사고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박근혜년의 집권 3년동안 교통사고는 년평균 21만 5 000건이나 일어나고 사망자와 피해자수는 33만 3 000여명에 달하여 오늘 남조선은 세계 1위의 교통사고지역으로 불리우고있다.

주민들속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는 불길한 소식뿐이다. 》, 《도대체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 》는 불만과 하소연이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로동자들을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있다.

현대제철산하의 한 제철소에서는 2013년 5월 5명의 로동자가 전기로에서 보수공사를 하다가 가스질식사고로 숨지고 그해 11월에도 독성가스가 루출되여 9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한해동안 현대중공업산하 회사들에서만도 산업재해로 30여명의 사망자가 났다.

2015년 1월 부산의 어느 한 조선소에서 40짜리 기중기의 기재실이 15m 높이에서 떨어져 그밑에서 일하던 여러명의 로동자들이 죽고 3월 경기도 통인시의 한 도로공사장에서는 건설중이던 다리상판이 무너져내려 출한 사람이 숨지거나 부상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괴뢰패당이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2014년에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로동자의 수는 하루평균 240여명, 년 9만여명에 달하였다.

산업재해사망자수는 다른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해 무려 2~4배나 많으며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로동안전조건이 제일 혈악한 곳으로 되여있다.

지난해 5월에는 보수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들이닥쳐 남조선을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당시 중동나라를 다녀온 한 주민에 의해 이 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박근혜년은 감염환자가 몇명인지조차 모르고있었다.

청와대것들은 저들부터 먼저 살겠다고 열감지기를 설치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댔고 삼성병원 등 재벌들의 손에 장악된 많은 병원들은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전염병방지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결국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대상자 1만 6 000여명으로 늘어나 메르스대란이라는 또 하나의 참사로 번져지게 되였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남조선을 가리켜 《위생방역이 제일 한심한 지역》, 《자본의 리익을 위해서는 모든것이 용인되는 가장 천박한 곳》이라고 비난하였다.

박근혜년은 집권 3년동안 대형참사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금부족을 구실로 안전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대형참사는 박근혜정부가 불아온 인재》, 《안전사회가 아니라 불안사회, 참사공화국으로 만들었다. 》, 《차라리 청와대가 통채로 불에 잠기든지 화재가 났으면 시원하겠다. 》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온갖 범죄와 패륜패덕이 란무하는 말세기적인 남조선사회

오늘 남조선에서는 각종 범죄와 패륜패덕이 더욱 성행하고있다.

박근혜년이 집권한 이후 각종 범죄사건은 매일 6 000여건, 해마다 200여만건이나 일어나 남조선은 세계적인 《범죄소굴》로 락인되였다.

자식이 돈때문에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가 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목졸라죽이는 사건,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사건과 같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불안이 더욱 커가고있다.

각종 폭력과 학대현상이 우심해지고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어린이학대, 로인학대 등 폭력과 학대현상이 어느 하루도 그칠 사이없이 나타나고있다.

전체 녀성의 3분의 2이상이 항시적인 성폭행위협에 시달리고있으며 130여만명의 로인들이 사회와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괴뢰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부부간의 폭행은 2013년 6 154건에서 지난해 1만 2 591건으로 2년만에 2배이상으로, 같은 기간에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 사건은 580건에서 729건으로 25.7%나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사회와 부모들의 사랑과 관심속에 떠받들리며 살아야 할 어린이들이 모진 학대로 시들어가고 지어 목숨까지 잃고있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인천의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원이 4살 난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인천어린이폭행사건을 비롯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지난해 상반년에만도 5 000여명에 달하며 꽃망울을 터쳐보지 못하고 숨져가는 어린이들도 적지 않다.

해마다 유괴, 랍치되여 종적없이 사라지는 어린이들은 수백명이나 된다고 한다.

괴뢰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의 학대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14년에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7배에 달하였다.

괴뢰경찰청장까지도 《하루평균 20여건이던 아동학대관련 신고건수가 인천어린이집사건이후 50여건씩 들어오고있다. 》고 말하는 형편이다.

각종 범죄자들가운데서 청년들이 80%이상에 달하고있으며 미국식약육강식의 법칙과 국도의 향락주의, 말세기적인 생활풍조와 패륜패덕에 물젖은 청소년들이 자기 리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최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돈만 가질수 있다면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를수 있다고 대답하여 사회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매춘, 도박, 마약 등으로 거래되는 비법경제규모는 2012년에 비해 26%나 늘어난 무려 3 900억US$에 이르고있다.

살래야 살수 없어 박근혜역적패당과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자 죄많은 아비지를 용서해달라며 탄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로동자, 살기가 어려워 자식들과 함께 집단자살의 길을 택한 송파세모녀자살사건, 생활난에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글을 써놓고 서울역주변 대도로에서 분신자살한 40대 남성,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학비를 마련할수 없어 세상을 등진 대학생 등 자살의 길을 택한 사람들의 정상은 눈을 뜨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현재 남조선은 년간 자살자수가 1만 5 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자살왕국》으로 되고있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만 해도 7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오죽하면 남조선에 《자살예방 5개년계획》이라는 해괴한 계획까지 다 있겠는가.

남조선을 이런 사람 못살 생지옥, 말세기적인 시궁창으로 만들어놓고도 박근혜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어대고 아직도 《일자리증심의 경제성장》이니, 《행복하고 활기찬 사회건설》이니 하며 똥물에 빠진 비루먹은 개새끼 한가지로 낯짝을 빳빳이 쳐들고 횡설수설하는것은 파렴치와 뻔뻔견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만일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여나고싶다. 》, 《백을대로 썩은 암덩어리인 박근혜를 칼로 도려내자. 》, 《국민을 목졸라 죽이려드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박살내자. 》는 웨침과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분연히 떨쳐일어나 경제와 민생을 파국에 몰아넣고 온갖 불행과 고통, 죽음만을 강요하는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4월 16일
평 양

《인권》잡귀신들이 너절한 광대극

얼마전 미국무성의 《북인권특사》라는자가 그 무슨 《북인권개선안》을 론의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을 행각하였다. 상전과 주구들은 무려 닷새동안이나 꿀을 맞대고 지난 3월 남조선에서 조작된 《북인권법》과 유엔인권리사회의 《북인권결의》의 후속조치들을 모의하였다고 한다. 괴뢰외교부와 통일부패거리들, 《국회》의장 등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가물에 단비 만난듯 겨끔내기로 상전을 찾아가 까투리웃음을 지으며 그 누구에 대한 《인권압박강화》와 《긴밀한 공조》를 애걸하였다.

카소로운것은 우리의 강력한 선군철퇴에 사방 얻어맞아 장구 깨진 무당꼴을 하고있던자들이 상전의 행각으로 《대북인권압박》이 속도를 내게 되였다고 패재를 부르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잔뜩 승기가 뻗친 역적패당은 서울에 둥지를 튼 《유엔북인권사무소》에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끌고가 그 누구의 《인권상황》에 대한 《본적적인 증언》놀음을 하게 했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 무슨 《책임추궁》에 대해서까지 들먹이고있다.

코 밑 강아지 쥐구멍 파듯 하는 괴뢰들의 추태는 볼수록 조소를 자아낸다. 선군총대의 무자비한 징벌타격에 언제 목이 날아날지 모르는자들이 새빠지게 누구를 추궁하고 처벌한다고 짓까부는가. 필승의 선군대로를 따라 질풍노도쳐나가는 우리의 전진에 《인권》모략으로 제동을 걸어보자는것인데 그야말로 모래로 물 막겠다는 격으로서 《인권》잡귀신들의 부질없는 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괴뢰들에게 묻는다. 주둥이만 살아 밤낮 《인권》타령을 늘어놓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놀음이 이젠 지겹지도 않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나 조선에는 《인권》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한목소리로 찬양하고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 그리고 국제인권모략군들만이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조국과 혈육도 서슴없이 버린채 도주한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거짓자료를 품안고 들어가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목터지게 떠들고있다. 특히 괴뢰들은 국제회의의 간판을 단 반공화국《인권》모략광대극들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니, 《필요한 지원노력》이니 하면서 저들의 너절한 도발망동에 대한 지지를 동네방네 구걸하고있다.

박근혜부터가 구린내나는 오물더미우에 치마까지 걸어올리고 앉아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우리 공화국을 시비질하는데 앞장서고있다. 얼마전에도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미국상전을 찾아간 박근혜역도는 역겨운 반공화국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고 그 무슨 《인류보편적가치의 문제》니, 《인간다운 삶》이니 하는 잠소리를 줴치면서 《북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강화》를 떠들어댔다. 그 본을 따서 수하졸개들도 매일같이 《북인권》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나발을 끈덕지게 불어대고있는것이다.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종북》, 《리적》으로 몰아 탄압박해하는 민주의 무덤,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수장시키고도 모자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까지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험악한 인권의 동토대에서 벌어지는 광대놀음에 과연 누가 눈길을 주겠는가.

인간세상에서 한시바삐 종식시켜야 할것은 《유신》파쑈독재가 되살아나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짱그리 유린말살된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인 남조선사회의 몸서리치는 인권실태이며 날로 팽기를 띠고있는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다.

상식도 리성도 통하지 않는 박근혜역적패당과는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내린 최종결단이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박근혜패당의 수치스러운 잔명이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가는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허 영 민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패당에게 남은것은 종국적파멸뿐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쑈통치에 매달리고있는 박근혜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16일 보도 제110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보도된바와 같이 4월 13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는 보수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대참패를 당하고 야당세력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였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기고만장하여 장담하였던 과반수이상의 의석은 고사하고 《국회》에서의 1당의 자리까지 빼앗겼으며 지어 서울은 물론 저들의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지역들에서조차 패하여 그야말로 초상난 집이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민심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박근혜년과 《새누리당》패거리들에 대한 단호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다.

박근혜패당은 지난 괴뢰대통령선거때 《국민통합》이니, 《국민행복시대》니, 《신뢰를 통한 남북관계개선》이니 하는 기만적인 공약들을 내들고 권력을 강탈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패당이 한것이란 《유신》독재부활과 반인민적악정, 동족대결과 전쟁책동뿐이였다.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짱그리 유린말살하는 파쑈암흑사회,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파국에 처하고 대형참사와 범죄, 말세기적인 풍조가 판을 치는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참혹한 실상이다.

사대매국에 환장하여 백년숙적 일본의 천인공노할 과거범죄를 백지화해주는것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패당의 천하역적행위는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북남관계를 완전히 절딴내고 미제와 함께 북침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박근혜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망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은 항시적인 핵전쟁참화의 무서운 공포에 시달리고있다.

박근혜년과 《새누리당》패거리들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저주와 원한은 하늘에 닿았으며 《박근혜정권 심판하라. 》, 《박근혜를 탄핵시키자. 》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박근혜년은 격노한 민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악질심복들을 당선시켜 《국회》를 또다시 《새누리당》독판치기무대로 만들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죄는 지은데로 가고 민심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기마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에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를 폭발시켜 반역《정권》의 정수리에 철퇴를 내리였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년과 《새누리당》에는 앞날이 없으며 남은것은 종국적파멸뿐이다.

본사기자

충격에 빠진 《식물대통령》

남조선방송들 보도

남조선방송들이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데 대하여 14일 일제히 보도하였다. 《KBS》방송은 20대 《국회》의원선거결과를 19대와 비교하면 여당의 참패가 두드러진다고 하면서 의회권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였다고 밝혔다. 방송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과반수의석을 가지고도 법안처리가 어려웠던 상태가 더욱 악화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새누리당》이 선거참패와 관련하여 분란에 휩싸여있다고 하면서 김무성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며 친박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방송은 밝혔다.

《MBC》방송은 《새누리당》의 패배로 하여 청와대가 충격에 빠졌다고 전하였다. 방송은 새 《국회》에 의하여 청와대가 《식물청와대》가 될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CBS》방송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자들은 박근혜가 그동안 제기해온 야당을 겨냥한 《국회》심판론에 《정권》심판으로 대답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의 패배로 막을 내린 리유는 그동안 그가 끊임없이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보여왔기때문이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을 겨냥한 《국회》심판을 제기해왔다. 《정부》도 이에 맞추어 《북풍》놀이에 나섰다.

결과는 결국 청와대가 내세운 야당심판론에 민중이 《정권》심판으로 대답한것으로 된다.

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된 이상 《대통령》의 기한전 퇴진가능성도 높아지고있다.

한 대학교수는 이번 선거는 완벽한 《정권》심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식물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에서 강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 발생

일본의 구마모도현에서 14일과 16일 리히터척도로 6.5, 7.3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1 000여명의 사상자가 나고 약 4만 5 000명이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도처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의 잔해속에 묻히였다고 한다.

구마모도현주변의 오이다현과 미야자끼현에서도 수많은 살림집과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들이 끊어져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약 20만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14일 밤부터 15일 아침까지 100여차례의 여진이 관측되였다고 한다.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피해가 더욱 커질것이 예견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61062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납송등록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6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